

(S) ESG와 건설산업 : 사회(Social) 분야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l3water@lh.or.kr)

- I. 사회분야(Social)의 개념 및 필요성
- II. 사회분야 평가기준 및 건설업의 사례
- III. 도시재생과 사회분야, 중소건설업의 역할

2

I. 사회분야 (Social)의 개념 및 필요성

ESG 평가는 기업에게는 지속가능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지표이다. ESG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경영이념이 아니다. ‘착한 경영’, ‘착한 기업’과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단순히 착한 행위를 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김재필, 2021). 하지만 CSR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의 사업 영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환경적 이슈를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이라면, ESG는 사회적 책임을 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관점에서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ESG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만큼 기업의 지역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소비자, 관련기업, 그리고 기업내 근로자에 대한 사회분야(Social)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 ESC 중에서도 사회분야(Social)에 해당된다(김국현, 2021). 코로나19 이후의 시장과 사회변화로 더욱더 사회분야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분야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노동권, 젠더 이슈 등을 포함한 기업 내·외부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SG의 사회분야는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얼마나 적절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가 핵심 평가기준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

II. 사회분야 평가기준 및 건설업의 사례

리두기 등이 일상화된 이후에는 구성원들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해고나 급여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노동환경에 대한 기업철학이 사회 분야의 중요한 이슈이다.

그리고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지 여부도 투자자들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만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보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제품 품질이 아닌 사회공헌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부족한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외면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ESG 중 사회(Social)분야를 중심으로 건설업 및 중견·중소 건설업의 실태를 정리하고, 향후 중소 건설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사회분야 평가 및 관리지표

사회분야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평가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12)은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상상공회의소·삼정 KPMG(2021)는 관리지표로 고용관행, 공급망 포함 아동노동/강제노동, 차별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산업안전보건, 지적재산 및 고객정보보호, 제품안전 및 품질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2020)는 고객만족, 데이터보호 및 프라이버시, 성별 및 다양성, 직원참여, 지역사회 관계, 인권, 노동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의 공통된 지표는 노동기준, 지역사회, 개인정보, 인권 및 개인정보 등이 있으며, 향후 기업 업종 및 유형에 따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1 ESG 중 사회(Social)분야 평가 및 관리지표

연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한상공회의소·삼정 KPMG	금융투자협회
평가 및 관리지표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고용관행 공급망 포함 아동노동/강제노동	고객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연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한상공회의소· 삼정 KPMG	금융투자협회
	소비자 지역사회	차별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산업안전보건 지적재산 및 고객정보 보호 제품안전 및 품질	성별 및 다양성 직원참여 지역사회 관계 인권 노동기준

자료 : 각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ESG 중견·중소기업의 평가점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2년도 유가증권시장의 평가대상기업 총 710개 기업 중에서 2011년 12월 31일 현재 중소기업은 117개이며, 중견기업은 331개를 대상으로 2012년 ESG 평가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항목

구분	지배구조	사회	환경
평가항목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가사기구 경광과실 배분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환경전략 환경조직 환경경영 환경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자료 : 오덕교(2012)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사회분야의 지표는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90.8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중소기업은 62.8점, 중견기업은 76.9점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분야의 점수가 낮은 것은 중소기업 등은 사회책임경영이 기업의 수익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오덕교, 2012).

표 3 기업규모별 ESG 점수

구분	기업수	지배구조	사회	환경
중소기업	117	89.6	62.8	87.4
중견기업	331	99.2	76.9	96.3
그 외 기업	262	122.7	121.0	121.9
전체	710	106.3	90.8	104.3

자료 : 오덕교(2012)

또한 기업규모별로 사회분야의 항목별 점수를 보면, 전체 평균점수는 30.3점이며, 중소기업은 20.9점, 중견기업은 25.6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인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을 기업규모별 평가결과를 보면 더욱더 중소기업 및 중견 등 소규모 업체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파악되었다. 특히 협력사 및 경쟁사 지표의 경우 10.5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 전체 기업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협력사 및 경쟁사 10.5점, 지역사회 11.7점, 근로자 27.2점, 소비자 54.5점으로 평가항목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협력사 및 경쟁사,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으며, 기업경영 및 투자관점에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4 기업규모별 사회분야 세부항목 점수

(단위: 개수)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전체
근로자	27.2	31.5	42.9	35.2
협력사 및 경쟁사	10.5	16.6	43.4	25.5
소비자	54.5	56.7	70.8	61.5
지역사회	11.7	17.0	32.3	21.7
감점	0.8	1.0	2.8	1.6
계	20.9	25.6	40.3	30.3

주 : 대항목의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을 나타냄

자료 : 오덕교(2012)

3. 건설업과 ESG, 사회분야 평가

(1) 건설업의 ESG 인식수준

건설분야에서도 ESG는 기업경영 및 투자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지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1)은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건설업의 ESG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0위 이내의 대형 건설업체 조사 '보통'으로 평가받았으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건설업의 ESG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건설업의 ESG 수준평가

구 분		매우 낮은 수준	↔		보통	↔		매우 높은 수준
		1	2	3	4	5	6	7
시공능력 평가순위	1~30위							
	31~100위							
전체								

자료 : 최은정(2021)

향후 ESG 경영과 관련하여 84.1%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변하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건설업계의 준비사항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위 이내의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42.6%가 ESG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30위권 이하의 기업은 16.0%에 그쳤다. 즉 ESG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준비상황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최은정, 2021).

(2) 건설업의 ESG 평가점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고 건설업종으로 분류되는 기업 중에서 32개 기업의 ESG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체계는 S, A+, A, B+, B, C, D 등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ESG 평가 중 사회분야에서는 1개 기업이 A+, 2개 기업이 A, 그리고 7개 기업이 B+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32개 기업 중에서 22개 기업이 B와 C의 평가점수를 받았다. 전체 ESG의 평균점수가 2.97점이며, 사회분야의 경우에는 3.22점으로 평균보다는 조금 높았으나, 지배구조(3.53)보다는 낮은 결과이다.

표 6 건설업의 ESG 점수

기업군	기업수	지배구조	사회	환경
S	0	0	0	0
A+	0	0	1	2
A	4	3	2	4
B+	4	14	7	0
B	12	12	15	10
C	11	3	7	11
D	1	0	0	5
전체	32 (2.97)	32 (3.53)	32 (3.22)	32 (2.78)

주 : ()의 점수는 S 7점, A+ 6점, A 5점, B+ 4점, B 3점, C 2점, D 1점을 부여한 평균값임

자료 : 빈재익(2021)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III. 도시재생과 사회분야, 중소건설업의 역할

이 조사의 결과는 건설업계의 상위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는 평균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업계 또한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친환경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ESG를 추진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다(최은정, 2021). 또한 대형 및 중견 건설업체보다 ESG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수 없는 중소 건설업체를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무리라고 판단되며, 기존의 평가체계와는 달리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및 투자환경에 맞는 새로운 평가방안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조사 및 평가결과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경우 ESG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건설업계 내에서 지속가능경영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서는 중견 및 중소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자본규모가 적어 ESG를 위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견 및 중소기업도 ESG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친환경(E), 개별기업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배구조(G) 보다는 상대적으로 실행에 부담이 적은 사회적 책임(S)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홍성진 외, 2021).

이를 위한 시도로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을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분야(Social)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총 158개 기업을 지정하였고, 17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전문성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비롯한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기업이면서 도시재생의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의 참여·확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를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건설업이 지역,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건설업의 지속가능경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특히 ESG의 도입과 관련한 투자관점에서 접근하면 건설업의 경우 금융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금융업의 변화와 연계하여 건설업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자금조달 및 금융기법 등이 취약한 중소건설업계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사회분야에서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SG 이슈에 대한 대응은 중소 건설업계는 업무 및 비용 측면에서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ESG의 경영 및 투자 측면을 고려한다면 중소 건설업계가 가장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분야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재필, ESG 혁명이 온다 : 성과에서 가치로, 새로운 미래의 혁신적 시그널과 생존전략, 한스미디어, 2021
2. 김국현, 세계는 지금 ESG 혁신중,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본 ESG 경영, SK hynix Newsroom, 2021
3. 오덕교, 중소·중견기업의 ESG 현황분석, 기업지배구조리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2
4. 홍성진 외, 중소건설업과 함께 하는 지역·주민밀착형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모델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2021
5. 빈재익, 2020년 건설기업 ESG 평가, 건설동향 브리프 제812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6. 최은정, 건설업 ESG 경영, 중요성 인식하나 여력은 부족, 건설동향 브리프, 제822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우수사례 선정-지역브랜드 창출·청년 일자리·시공교육 등 11개 우수사례 성과 확산-”, 2020. 12. 31. 보도자료.